



[금융] “중·저신용자에 1금융권 혜택” 토스뱅크 출범 06



Economy

코스피	2962.17 (-57.01)	코스닥	955.37 (-27.83)
금리 (우대금리)	1.650 (+0.017)	환율 (USD/원)	1188.70 (0.00) (5일)



코스피, 6개월만에 3000선 붕괴... 코스피지수가 6개월 만에 3000선 아래로 떨어졌다. 5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매도 공세에 전 거래일 대비 57.01포인트(1.89%) 하락한 2962.17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3월24일 종가(2996.35) 이후 6개월 만에 30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6200억원 어치를 팔았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뉴시스

‘메타버스(Metaverse)’란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경제·사회·문화 활동이 이뤄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상이 현실이 되고, 돈이 되는 곳이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기술과 경제가치의 진화, 투자관점에서 메타버스가 인터넷 이후의 혁명이라고 진단한다. 금융권에선 메타버스와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새 경제주체 MZ세대와의 접점 소통 넘어 상상이 현실·돈으로

W 메타버스와 금융

<1> 〇〇지점 대신 메타버리지점 오픈

우리은행 ‘명동본점’ 플랫폼 조성
신입행원 비대면 임명장 수여식

신한은행 ‘솔버스 메타금융스토리’
초등학생에 투자게임 등 금융교육

하나은행 ‘글로벌 캠퍼스’ 구현
‘벗바리 활동’ 수수료식 등 진행



시중은행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해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

주요 은행이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〇〇지점 대신 메타버리지점 오픈도 예상된다. 또 신입사원연수, 투자 세미나, 금융교육 등은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은행들은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해 비대면(언택트) 거래와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적극적인 메타버스 활용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경제가 일상화되면서 금융권의 시선은 디지털로 구현한 가상의 세계인 메타버스에 집중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가공·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방식을 비대면으로 바꾸면서

경제활동의 기능까지 가져온다는 것.

금융권이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경제 주체인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의 접점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자체가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소비자들도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상황으로 메타버스 활성화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디지털·IT부문의 채용 취지를 살려 해당 신입행원의 임명장 수여식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가졌다. 플랫폼에서 신입행원 임명장 수여장소인 서울 명동 본점 강당과 동일한 공간을 구현해 권광석 우리은행장과 신입행원의 얼굴을 아바타로 만

들어 현실감과 몰입도를 높였다.

우리은행은 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가입하고 메타버스 기반 미래금융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향후 영업점에 증강현실(AR) 기반 메타버스 시범 영업점을 만들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인 ‘신한 솔버스(Solverse) 메타금융스토리’를 시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집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아바타를 통해 서로 소통해 저축의 필요성과 투자 게임 및 금융OX 퀴즈 등을 체험토록 했다.

<4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반도체·가전 주력사업 선방 삼성·LG, 역대급 실적 예고

오는 8일 3분기 잠정실적 발표
삼성, 매출 73조 영업익 16억 전방
LG, 매출 18조 영업익 1.1조 유력

삼성·LG전자가 역대급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반도체와 가전 등 주력 사업에서 선전하면서 새로운 기록이 유력하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피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3분기 잠정 실적을 8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양사가 다시 한 번 크게 성장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매출액 73조원에 영업이익 16억원, LG전자가 매출 18조원에 영업이익 1조1000억원이 유력하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영업이익이 20~30% 늘어난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설립 후 처음으로 매출 7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영업이익도 2분기 연속 10조원을 손쉽게 돌파하면서 코로나19 충격을 완전히 씻어냈다.

삼성전자 실적을 이끈 사업은 단연 반도체다. 시장에서 추정하는 반도체

실적은 매출액 20조원 후반대에 영업이익 10조원 수준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유지했다. 올 들어 서버용 D램 수요가 꾸준히 확대됐고, 가격도 오른 영향이다. 특히 3분기에는 D램 출하량이 4%, 가격이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실적이 극대화됐다.

스마트폰 사업도 갤럭시 Z폴드3와 플립3 출시 등 호조로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가전 부문 역시 코로나19 이후 호황이 지속하면서 호실적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효과도 있었다.

LG전자 실적 역시 역대 최대수준이다.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선언한 후 2번째 분기 실적으로, 영업이익 기준 전년 동기보다 10% 가량, 전분기보다도 20% 가까이 늘었다.

이번에도 LG전자 실적 핵심 사업은 가전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레드 TV가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량 성장한 상황, 3분기에도 판매량 증가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브제 컬렉션도 인기를 높이면서 가전 사업 전반적으로 실적 향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文 정부 마지막 국감... 상임위 곳곳서 파행

고발사주·대장동 의혹 국감 점령
野, 관련문구 마스크착용 등 시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틀째인 5일에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행을 겪었다. 여야가 상대 정당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검찰 야당 고발 사주 의혹’과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국감장에서 맞붙으면서다. <관련기사 3면>

고발사주·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계 없는 상임위에서도 야당은 관련 문구가 적혀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피

켓 시위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으며 대부분의 상임위는 개의회가 지연되거나 정회 후 뒤늦게 국감이 시작됐다.

여야는 국감 2일차인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법무부등), 정무위(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재위(기획재정부), 교육위(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국방위(방산통신위원회 등), 국방위(국방부), 문체위(문화재청 등),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부), 산자위(산업통상자원부), 환노위(환경부), 국토위(국토교통부 등), 행안위(경찰청)까지 총 12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국정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대부분 상임위가 파행을 겪거나 시작이 지연됐다.

일각에선 기관의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입법·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하는 국정감사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기관의 운영 실적을 점검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野, ‘횡령논란’ 윤미향 사퇴 압박... 제명 추진
▲윤석열 측, MBC 장모 아파트 특혜 보도에 ‘부정 선거 개입’ /사진 뉴시스

▲ 이준석, “대장동 의혹 ‘反 이재명파’가 갖고 있을 것”
▲尹 캠프측, 현역군인 논란에 “군 형법 위반 없다”



▲ 이재명 측,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축소, 퇴임 후일” /사진 뉴시스
▲ 국민의힘, 8일 2차 컷오프 4인 발표 예정